

송도 채드윅 인터내셔널 워밍턴 총괄 교장 부부

한국인 두 자녀 입양 스토리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 속에 9월 7일 미국의 명문 사학 '채드윅 인터내셔널'(구 송도국제학교)이 문을 연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리처드 C 워밍턴 총괄 교장 부부는 이번이 두 번째 한국살이다. 한국 문화에 매료돼 한국 아이까지 입양한, 자칭 '절반 한국인 가족'이라는 워밍턴 부부의 글로벌 교육법.

취재 윤혜진 기자 사진 이재희(studio lamp)



채드워 인터내셔널 총괄 교장 부부의 인천 송도에 위치한 아파트에 초대 받았을 때 모던한 분위기의 레지던스를 상상했다. 그런데 현관 입구에서부터 곳곳에 놓인 한국적인 소품이 눈에 띈다. 대학 졸업 후 휴렛팩커드(HP)에서 33년간 근무한 워밍턴 총괄 교장은 1988년부터 4년 동안 한국휴렛팩커드 사장을 맡아 한국에서 지냈다. 이때 아내도 따라와 함께 지냈다. 그 후로 18년 만이다. 강산이 두 번 가까이 변하는 동안 그도 기업가에서 교육자로 변신했다. 2000년에 회사를 은퇴한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사립학교에서 재단이사직을 맡아 교육자 경험을 쌓았다. 당시 한국에서 함께 일한 젊은 인재들을 지켜보며 한국 교육이 딱딱하고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도 교장을 맡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지금의 자리를 제안 받았을 때는 그다지 한국행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채드워 출신이라 봉사하는 의미에서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일까? 아이들이 나중에 결정을 듣고 지지해 줬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 캐롤라인 워밍턴 여사가 아니라며 펄쩍 뛴다. 자신이 기억하는 남편의 반응은 꽤 설레 보였단다. 그녀는 처음에는 갑작스러워 당황했지만 생각해 보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다고. 예전에 4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사귀 친구도 많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니 별로 걱정할 일이 없었던 것. 무엇보다 사랑하는 두 아이를 만난 나라였다. 부부는 올해 스물다섯 살이 된 딸 제이드와 스무 살인 아들 마이클을 한국휴렛팩커드 사장으로 있을 당시인 20년 전 한국에서 입양했다.

“예전부터 부모가 되길 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살 때 그 마음이 더 커졌고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죠. 특히 태어난 지 4주밖에 안 된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를 잊지 못해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귀가 참 잘생겼더라고요. ‘백말띠’답게 에너지틱한 아이였어요.”

워밍턴 여사로부터 ‘백말띠’라는 단어를 들을 줄은 몰랐다. 전통적으로 백말띠는 활동성이 강한 띠라고 알려져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백말띠’의 의미를 알고 있는 푸른 눈의 부모가 가슴으로 낳은 두 아이를 어떻게 길렀을지 더욱 궁금해졌다.

갓 태어난 아들을 안았을 때 무척이나 사랑스러웠죠

딸 제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라가에 있는 성 마리스 칼리지(St. Mary's College)에 입학하였으나 집 근처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했다. 아직 전공을 결정하지 못해 고고학, 천문학, 법학 등 다양한 수업을 듣고 있다. 글 쓰는 재능이 남달라 출판된 작품도 몇 건이 있는 어엿한 작가이다. 봉사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아프가니스탄 군사 분쟁 지역에 간식과 잡지 등을 보내 주기도 하고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기도 한다.

아들 마이클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로올라 메리마운트 칼리지(Loyola Marymount College)의 2학년에 올라갈 예정이며 스포츠 마케터나 방송인이 되는 게 꿈이다. 부부는 현재 미국에서 지내는 두 아이와 매주 최소한 45분 정도는 인터넷 화상 통화를 통해 소소한 대화를 나눈다. 물론 잔소리도 포함하다 보니 때로는 잦은 통화 연결 시도를 아이들이 거부할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부부는 ‘아이들이 이제 정말 다 컸구나’ 느낀다고. 그



지난해 추수감사절 날, 온 가족이 야외로 나들이를 떠났다. 20년을 함께 살다보니 활짝 웃는 모습이 서로 닮아간다.

“20년 전 가슴으로 낳은 두 아이,
아이들을 위해 은퇴 후 교육자 길
걸어온 제2의 인생”

래도 입양이란 조금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한 가정에서 이만큼 별 탈 없이 자라준 아이들이 고맙다.

“제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지내는 게 외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낯선데 신생아를 기른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도우미 아줌마가 ‘어부바’로 업어 키웠어요(웃음). 딸 같은 경우는 당시 여섯 살이었는데 언어가 가장 큰 문제였죠. 전혀 영어를 못해서 학교를 보낼 수도 없었어요. 나중에야 외국인 학교인 서울아카데미에 보냈는데 공부를 곧잘 했지요.” 워밍턴 여사는 딸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책을 읽어 주며 노래도 부르고 대화도 나눴다. 공원, 커피숍 등 어디를 가든 늘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니까 하루는 그녀가 개인 과외 교사인 줄 알고 어떤 학부모가 다가와 섭외(?)하려고 했던 적도 있단다.

“입양은 분명 힘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한국에서 살아 봤기 때문에 이곳에 안 와본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 점이 있을 거예요. 생활하다가 아이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고 ‘나, 한국인처럼 생겼다’고 놀랄 정도로 우리끼리는 별 차이를 모르고 살았어요. 가족 모두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전 김치 볶음밥도 만들 줄 알아요.”

“저는 아이들이 한국인이란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길 바랐어요. 그래서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한국에 보내 축구 거리 응원에 참여하게끔 했어요. 그때 거리 응원이 재미있었는지 올해 월드컵 때 아들 녀석이 한국에 2주 정도 와 있었어요.”(총괄 교장)

워밍턴 총괄 교장은 “우리 가족은 좀 다른 형태로 생겨나서 더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 같다”고 했다. 특별한 에피소드가 많은 건 사실이다. 이번



에 학교 설립 인가를 받는 과정이 계속 늦춰져 힘들었을 때였다. 미국에서 딸이 '아빠 파이팅(Daddy Fighting)'이란 메시지를 적어 주문 제작한 명판을 선물로 보내 왔다. 받는 이로선 감쪽한 선물이지만 주문을 받은 미국 업체에서는 끄적했다. 딸에게 '아버지가 격투기 선수나 군인이냐고' 메시지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던 것. 나중에 딸에게 에피소드를 전해 들은 부부는 아무렇지 않게 선물을 받아들였던 자신들 때문에 또 한번 웃었다. 부부는 어느덧 한국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다.

지금도 아이 돌반지 보관 중, 남편은 자녀 교육 위해 직장 은퇴

조금은 무거웠던 입양 이야기를 털어내자 워밍턴 부인의 긴장이 풀렸던 모양이다. 사진첩을 꺼내 와 본격적인 아이들 자랑에 나선다. 파노라마 영상처럼 펼쳐지는 설명을 들으며 이 부부는 한국, 미국 국적을 떠나 남다른 열성으로 아이들을 길러온 부모란 확신이 생겼다. 어쩐지 20년 전 들었던 '백말띠'를 괜히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부부는 지금도 아이들의 돌반지를 보관 중이다. 이태원에서 구입한 20년 된 커다란 인형도 가지고 있다. 매년 생일마다 의식처럼 아이와 인형을 나란히 놓고 아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비교 사진을 찍어준다고, 얼마 전 생일에는 아이가 인형을 목말 태우고 사진을 찍었다며 까르르 웃는다.

그런데 이 정도는 부부의 남다른 정성과 교육관을 보여주는 데 애피타이저 수준이랄까. 메인 디시는 더 강하다. 남편이 아이 교육을 위해 직장까지 은퇴했다. 홍콩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 아들은 홍콩 국제학교 3학년,

딸은 9학년(한국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 그는 당시 주말을 제외하곤 전혀 두 아이에게 신경을 써줄 수 없었다. 결국 바쁘게 보낸 4년을 인생에서 놓쳤다고 생각한 그는 은퇴를 하고 가족과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재단 이사회 활동을 5년 동안 했다.

"남편에게 아버지로서 자신의 점수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남편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은퇴 후 가족들에게 한 행동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틈틈이 아들과 골프를 치거나 딸과 커피숍에서 밀크 셰이크를 마시고 고전 영화를 보았던 훌륭한 가장이에요."

"우리의 교육 방식은 가족끼리 어떤 일이든 대화를 많이 나누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한 과목 성적을 낙제에 가깝게 받아와서 1500단어를 사용해 에세이를 쓰게 했어요. 지금의 나쁜 성적을 수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음 계획은 어떠한지 분석하라는 의도에서요. 스스로 생각해 본 다음에는 아들이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교육 방침 중 부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인이 되라는 것이었다. 부부는 "우리 아이들은 한국인인 동시에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밍턴 부부는 두 아이를 위해 많은 나라를 여행 다녔다.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 여행 다니는 것을 참 즐거워했다. 비행기에서 사라진 적도 많았는데 찾아보면 승무원들과 게임을 하고 있거나 승무원을 도와 서빙을 하고 있다고, 낯선 곳에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 늘 자신감이 충만한 아이로 자라났다.

"한국은 단일 민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자칫 아이가 글로벌

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교해 보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여행보다도 열린 사고 자체를 길러주는 게 중요해요.”(총괄 교장)

두 개의 문화가 만나 공동의 가치를 찾는 게 중요

한국인 아이를 글로벌하게 키워낸 부부의 교육관을 새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 궁금했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인터넷을 살펴하던 중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비 학부모들이 블로그에 올린 채드워 인터내셔널 방문 후기는 한결같았다. 아이를 보내고 싶은 건 당연지사, 자신도 그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것. 채드워 인터내셔널은 외국 대학교를 능가하는 첨단 시설은 기본, 교사 1명이 학생 8명을 맡아 가르치고, 졸업 후 미국 대학 입학에 위한 자격까지 주어진다. 정보력 뛰어난 한국 학부모들이 몰릴 만하다. 이 같은 한국 특유의 높은 교육열에 대해 원래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물론이죠(Absolutely). 뒤늦은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에도 불구하고 본교 입학에 위해 몰린 경쟁률이 하나의 증거랄까요? 또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에서는 교육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잖아요. 그 외에도 올바른 방향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교육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비용 등이 모두 높은 교육열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총괄 교장)

“제 생각에는 한국의 교육은 균형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배움에 대해 기쁨을 느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암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듯해요. 아이가 훗날 엄마에 대해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배우는 과정이 즐거웠어’라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캐롤라인 워밍턴 여사)

그래도 필기 시험과 면접 과정을 거치며 학교를 찾은 예비 학부모들과 직접 만나보면서 워밍턴 총괄 교장은 안심했다. 예비 학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더 영어를 잘하게 만들 것인가’보다는 학교의 교육 철학 부분에 좀 더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 시험에 참여한 예비 학생들도 활기가 넘쳤다. 한편 희망을 안고 돌아간 것은 예비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을 터다. 워밍턴 총괄 교장은 시험을 치르고 학교를 공개하는 기간 동안 오전 7시부터 나와 오후 4시까지 1회에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예비 학부모 대상 학교 투어를 하루 3회씩 일주일간 직접 진행했다. ‘교장 선생님’ 하면 아직도 지루한 조회 시간 훈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부모 세대에겐 그야말로 센세이션 그 자체다.

“한국휴렛팩카드의 대표이사로서 제가 힘써왔던 부분은 두 개의 다른 문화가 하나의 조직과 목표를 위해 융화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학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존중(respect)의 경우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은 이를 쌍방에 대한 ‘존중’보다는 연장자에 대한 ‘존경’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죠. 두 개의 문화가 만나 공동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제가 꿈꾸는 지향점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노력과 대화로써 가능하리라 봅니다.”



1



2

1_두 아이들이 항상 캐롤라인 워밍턴 여사 가슴에 있다. 20년 전 이태원에서 만들어 목에 건 후 한 번도 뺄 적이 없는 특별한 목걸이.

2_워밍턴 부인은 엄마 품에서 환하게 웃던 어린 아들이 어느덧 청년이 되었다는 게 그저 놀랍다. 사춘기 아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3_그동안 찍어온 가족사진을 모아 만든 2004년 달력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부부. 온갖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 가족들이 만나면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



3

앞으로 워밍턴 총괄 교장은 한국에서 살아보고, 아이를 교육시켜본 경험을 학교 운영에 오롯이 녹여낼 생각이다. 더불어 해외 선진 교육을 체험해 본 학부모와 아이들이 적지 않은 요즘, 미국 캠퍼스와의 실시간 화상 수업 및 세계 85개 학교들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 네트워크인 ‘라운드 스퀘어 스쿨’과의 적극적인 교류 등을 통해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무엇보다 교사 출신의 아내가 남편을 위해 지원군으로 나섰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학교 상황에 대해 필요하다면 의견을 제시해 주려 합니다. 사실 남편이 임시 교사직을 제시했는데 그건 거절했어요(웃음). 여기서 지내는 동안 예전에 하던 일을 하고 싶어요. 펄벅재단에서 2년 정도 봉사 활동을 했는데 기금을 조성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전하는 일이에요. 또 아직은 아이들에게 제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워밍턴 여사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신의 눈에는 아이들이 어리게 보인다고 웃었다. 순간 그 웃음에서 시집간 기자를 아직도 어린아이 취급하는 친정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글로벌 패밀리를 이룬 교장 선생님이 있는 진짜 글로벌 스쿨이자, 참부모의 마음으로 재미있게 가르쳐줄 그곳에서 아이가 공부를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행복하게 공부할 것 같다.